

영화 <음란 서생>을 보고..

I. 서론

영화 <음란 서생>은 1)조선시대 후기를 배경으로 하며, 전통적인 양반 이미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특히, 이 영화에서 '새책가'라는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당시 사회와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한다. 이 감상문에서는 <음란 서생>의 새책가 장면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대중 소설과의 연결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화가 어떻게 그 시대의 문학적,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II. 본론 1 - 조선시대 대중문학의 역사



조선시대 대중소설의 역사는 15세기 김시습이 쓴 한문 소설, 『금오신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소설은 역사적인 대변혁과 작가의 개인적 체험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로,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문학적 전통은 17세기에 이르러 더욱 발전하였다. 허균의 『홍길동전』은 최초의 한글소설로, 새로운 언어적 접근을 통해 문학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이 시기에 김만중은 『구운몽』과 『사씨남정기』를 통해 양반 사대부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문학적 성취를 이룩하였다.

18세기가 되자, 조선 사회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대중문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상업의 발달과 함께 서민 계층과 여성 독자층이 증가하면서 소설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배격론과 옹호론, 그리고 양비론이 공존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대중문학의 전성기는 특히 전기수와 판소리의 등장, 그리고 새책가의 출현으로 두드러졌다. 새책가에서는 다양한 소설들이 대중들에게 소개되고, 이야기꾼들이 그 내용을 전달하며 문학의 생동감을 더하였다. 영화 <음란서생>에서도 이러한 새책가의 모습이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하여, 당시의 문학적 풍경과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대중문학이 어떻게 일반 대중에게 다가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시대의 변화와 함께 발전해왔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II 본론 2 - 영화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

영화의 주인공 윤서(한석규 役)는 내가 가졌던 양반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집는 인물이었다. 전통적으로 양반은 성리학을 공부하고 정치에 종사하는, 대중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윤서는 이러한 전형적인 양반상과는 대조적으로, 공부와 과거 시험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난잡한 소설을 쓰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 이러한 캐릭터는 양반 계급 내부의 모순과 복잡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조선시대 대중문학이 어떻게 대중, 특히 여성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한 이 문학 장르는 당시의 성차별적인 시각을

1) 영화 중, "새책가"라는 단어가 언급이 된다. 교수님의 PPT의 내용에 의하면, 18세기에 새책가라는 곳에서 대중들이 책을 구하고, 읽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거간꾼이라는 사람도 존재했는데, 이 영화에서도 새책가 뒤편에서 책을 बे끼던 사람(채제공<여사서> 서문에 언급된 내용)이 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넘어서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했다. 소설을 통해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감정과 사건들을 대리 경험하며, 나는 이러한 이야기들에 깊이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특히, 영화속에서 윤서가 성리학의 전통적인 가치와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대중소설 사이에서 갈등하던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는 신분제의 동요와 사회적 변화가 양반 계급에도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정체성 탐색과정을 흥미롭게 보여주었다. 나에게 이 영화는 단순한 역사적 재현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로 느껴지기도 하였다.

II. 본론 3 - 아쉬운 점

영화 <음란서생>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현실성이 결여된, 과장된 허구적 내용의 강조였다. 특히, 왕의 부인인 정빈과의 성관계를 다룬 장면과 이를 소설로 전환한 부분은 매우 자극적으로 느껴졌다. 조선 시대의 엄격한 사회 규범과 왕실의 권위를 고려할 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설을 쓴 주인공이 단순히 유배로 처벌받는다는 설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였다.

더욱이, 유배지에서도 소설을 함께 쓴 사람들과 함께 대중문학을 계속 쓴다는 설정은 주인공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는 조선시대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불필요한 과장이라고 생각된다. 영화가 현실적인 역사적 배경을 더 존중했다면, 이야기의 진정성과 몰입도가 향상되었을 것이다.

또한 영화는 왕비에 대한 후속 조치나 그녀의 최종 운명은 다루지 않아, 나로 하여금 궁금증을 남기는 등의 불완전한 스토리라인을 보여주었다. 영화 속의 과격하고 자극적인 장면과 대사는 때로는 영화의 주제와 분위기를 해치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부분은 영화의 사실적인 묘사와 감정적 깊이를 희석시켜,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저하시켰다.

III. 결론

영화 <음란서생>은 조선시대 대중문학의 역사와 그 시대의 사회적 맥락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영화는 주인공 윤서를 통해 전통적인 양반의 이미지와는 다른, 복잡하고 다면적인 캐릭터를 그려내며, 조선시대의 문화와 문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했다. 대중문학이 당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여성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탐구하는 데 있어 이 영화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영화가 허구적이고 과장된 요소에 지나치게 의존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실성이 결여된 설정과 자극적인 묘사는 때때로 영화의 사실적인 묘사와 감정적 깊이를 의석시켜,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흐리게 만들었다. 역사와의 균형을 잘 맞춘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졌다면, 영화는 더욱 풍부하고 신뢰성 있는 경험을 제공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음란서생>은 조선시대 대중문학과 그 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품이다. 영화속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캐릭터와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과 허구의 경계에서 흥미로운 탐색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문화와 문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었으며, 동시에 역사적 사실과 허구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해준다.